

# “이타심 실천할 때 통일 결실 맺어”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조계종이 주최하는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에는 캄보디아 승왕 페브영 스님을 비롯해 스리랑카 니안고다 시암종 말루와타 부종정 스님, 호주의 수프아모 스님과 뻬아빠로 스님, 네팔의 남갈 타망 스님 등 20여개국서 220여 종교지도자가 내한했다. 서울 흥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룸에서는 주요 불교지도자 스님들의 인터뷰가 있었다. 이들은 저마다 세계 종교인들이 힘을 합쳐 평화를 위해 앞장서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일·박이름 기자

## 페브영 스님(86·캄보디아 승왕)

우리 캄보디아는 과거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폴포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공산화 되던 때 약 800만명 인구 중 절반이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도 체포돼 감옥살이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낼 당시 많은 정계 사람들과 힘을 합쳤습니다. 그분들의 협력의 공산 정권을 물리치고 캄보디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때부터 불교를 다시 부흥시키고, 문화와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가를 새로 건설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중요하고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또 종교적으로 한국과 불교 교류를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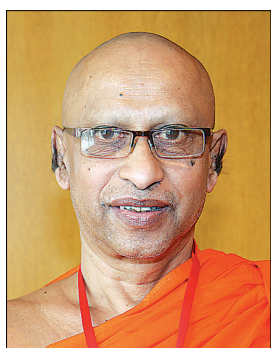
남북교류 앞장서는 것 종교인 역할 불교는 대세에 휩쓸리지 않는 것 자연스런 화합 분위기 조성 중요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 불교 종단에서도 다양한 도움을 주어 많은 사람을 증축 보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생각한 것이 한국에 이 빛을 갠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 임진각에 기본 대응에는 더욱 그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것은 종교인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단연 한국 종교인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의 종교인들이 힘을 합한다면 남북통일과,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규모와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두 명이 왔다 해도 300명의 역할을 해낼 수 있고, 300명이 왔어도 두 명의 역할 밖에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화합을 위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과 내일, 이 자리가 분명 그 해답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교의 특징은 어떤 사건이나 대세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적 관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억지스럽게 만든다고 이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흘러가는대로 함께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자리와 문화를 조성한다면 평화는 당연히 찾아올 것입니다. 결과는 항상 걱정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 결론에 따라가기 급급하지 말고, 서로 좋은 마음으로 발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론이 따라올 것입니다. 즉 한반도 통일의 문제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율을 통해 언젠가 그 열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타심을 실천할 때 더 나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평화 위해선 부조리 파괴 급선무

니안고다 스님(68·스리랑카 시암종 말루와타 부종정)



이번 행사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복70주년 기념 대회, 둘째는 남북 간의 통일 발원을 위한 대회,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를 위한 행사입니다. 남북 간의 평화통일을 기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나 정치 등 여러 가지 한국사회가 이룬 발전을 스리랑카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하루 빨리 한반도가 한 민족, 한 나라로 통일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면 세계에 발전에 보탬이 되는 힘 있는 나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 봐도 화합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화합으로 인해 여러 가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큰 기원대회를 여는 동안에 남북 간에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수행을 통해 각자가 자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그런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인 수행을 모든 분들이 한다면 화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리랑카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분쟁국가였습니다. 내전이 종식되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정부와 반군들 사이에 예로부터 평화적 합의가 있었지만, 반군들은 합의만 하고 행동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함께 시암종 스님들이 협력해 정부에 지속적인 요청을 했고, 합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스리랑카 내전 종식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반군의 폭동이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시암종의 강력한 요청으로 반군들과 정부의 갈등이 종식될 수 있었습니다. 시암종의 스님들과 스리랑카 다른 종단의 모든 스님들이 힘을 합쳐 평화를 이뤄낸 것입니다. 대중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부조리를 파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 스님들도 북측의 사람들에게 불교 사상을 전파할 수 있다면 좀 더 빨리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강제로는 절대 할 수 없고 지혜를 짜내 자연스런 방법으로 불교의 사상을 포교해야 합니다.



수프아모 스님 뻬아빠로 스님

## 자비심 발현, 평화통일 지름길

수프아모 스님(64·호주불교연합회 회장) 뻬아빠로 스님(76·호주불교연합회 부회장)

한국 간화선을 어느정도 알며,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중국의 쯐 명상법(선 수행)이 한국의 간화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간화선은 사마마, 위빠사나 적인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진 것이라고 봅니다. 명상은 마음수행법이 무엇이나 묻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마음챙김 수행법에 따라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이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똑같은 수행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기원대회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자리는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참선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무척 중요합니다. 약 10여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참선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탐진치를 없애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게 수행법을 널리 포교해야 합니다. 세계로부터 많은 고승들이 모인 이 거대한 행사가 그것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온 세상을 자비롭게 사랑합니다. 나와 남을 나누고, 분리되고, 분단되는 세상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와 남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역사사지로 생각하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 노력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비의 마음을 갖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 노력을 할 때 상대는 변화할 것입니다. 협력은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 고통스런 이들에게 존재감 심어주자

남갈 타망스님(46·네팔 남갈린포체 재단 설립자이자 현 회장)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고난을 헤쳐 나가야 할지 최대의 노력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간성 회복을 하루 빨리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대회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회를 통해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팔에는 지진 재난 복구 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심지가 며칠 전에도 또 한 차례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립된 산 속에서 구호활동에 방치된 사람들을 위해 네팔 불교계는 약과 임시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줄 뿐 아니라 그 유가족들을 보살피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치유하며 물질적으로, 또 심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1천여 명의 사람이 파괴되었는데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여자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들이어서 특히나 더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원이 무너지면서 많은 스님들도 입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피해로 돌아가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난 속에서 우리 불자들은 기도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존재감을 찾게 해주고, 삶의 원동력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웃어주고, 집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자들이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팔에서 역사적으로 힌두교가 가장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40프로 이상이 불자입니다. 히말라야 쪽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불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힌두교인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불교의 사상이 만연히 퍼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사랑과 평화로 이루어집니다. 불자들은 더욱 자비와 인간 존재의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하나의 종교로서 역할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근본 가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와 인간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가 세계평화에 일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와제인 앤토니 세네라 제임스 코왈스키

## 간화선 수행은 선 수행 원형 잘 보존

제임스 코왈스키(65·세인트 존 더 디비인 대성당 주임사제) 앤토니 세네라(66·세이크리드 하트대 총장) 바와제인(59·세계종교지도자협의회 사무총장)

한국과 미국 불교의 차이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코왈스키 사제=사실 미국서 한국 불교를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불교는 달라이라마로 대표되는 티베트 불교가 유명합니다. 하지만 각 나라간 불교의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불교를 접하고, 한국 불교가 세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세네라 총장=미국은 60~70년 전에는 개신교가 유행했으며, 50년 전에는 가톨릭, 지금은 힌두교와 불교 등이 새롭게 떠오르며 종교 다원주의가 부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한대로 달라이라마와 티베트 불교가 유명하고 한국 불교는 유명하진 않지만, 삶의 목적과 영적인 목마름이 항상 갈구되는 미국 사회서 한국 불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낍니다. 바와제인 총장=분명한 점은 미국서도 현재 불교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넓히기 위해 불교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 스님들을 만났을 때 불교도는 좋고, 개신교는 늘고 있다고 걱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 불교는 오래된 지혜와 가치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국 불교는 그만큼 잠재력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간화선 수행은 선 수행의 원형을 잘 보존하는 수행법이기에 때문에 극단적 성장의 뉴욕과 미국인들에게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 대한불교 승가종

## 종정 월인

- |                     |                       |                    |
|---------------------|-----------------------|--------------------|
| 원로원장 <b>혜공</b>      | 총회의장 <b>혜륜</b>        | 총무원장 <b>법수</b>     |
| 재무원장 <b>무착</b>      | 포교원장 <b>도안</b>        | 총무부장 <b>도일</b>     |
| 범음범패교육원장 <b>법수</b>  | 승가종법사대학장 <b>원해</b>    |                    |
| 비구니범음교육원장 <b>법관</b> | 승가종총본산승가사주지 <b>선견</b> |                    |
| 월인문도회문장 <b>법종</b>   |                       |                    |
| 서울총무원장 <b>정행</b>    | 부산총무원장 <b>봉산</b>      | 대구경북총무원장 <b>지운</b> |
| 대전총무원장 <b>법지</b>    | 울산총무원장 <b>도성</b>      | 경남총무원장 <b>월곡</b>   |
| 강원총무원장 <b>부루나</b>   | 전남총무원장 <b>선궁</b>      | 충도일동               |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을 향기로운 세상



2015년 4월 11일 호국연무사 5천 장병 수계법회

## (사) 대한불교승가종 총무원장 법수

■ 총무원 :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177-15번지 ■ 전화 051)552-8554, 556-0278~9 / 팩스 051)556-8551